

## 國際作家大會의 敎訓

文化實踐에 있어서의 善意志(四)

朴致祐

文化를 擁護한다고 반이 善인듯것은 아니다. 어떠한 文化를 擁護하는가가 重要的 것이다. 이 點은 文化實踐에 있어서 잇어서는 안될 重大한 點이다. 文化 擁護 國際 作家大會은 「文化의敵은 파시스트다. 히러들一派다, 이 나라의 나쇼 「이 나라의 나쇼나리스트」는 民族文化를 擁護」하기 爲하여 싸 호고 잇지 안흔가? 그럼에도 不拘하고 大會는웨 이를 堂堂한 文化擁護의 騎士들을 「文化의敵」이라고 印을 찍고 잇는가? 이 堂堂한 文化擁護의 騎士들의 擁護實踐, 文化實踐을 「惡」으로서 宣을하고 잇는가 다름 아니다. 文化를 擁護한다고 반듯이 善인것은 아니기 때문이다. 어떤 文化를 擁護하는가가 重要的 問題이기 때문이다. 이 點은 文化 擁護 國際 作家大會의 文化實踐을 批判하며 攝取함에잇어 特히 잇어서는 안 될 것이다. 웨나하면 나는 언젠가 知名한 「이 나라의 나쇼나리스트」가 民族文化의 擁護가 얼마나 急務인가를 強調하는 나머지 「지-드」의 演說까지 引用하고 잇음을 본 일이 있다. 나는 이 知名의 「나쇼나리스트」가 引用한 一句가 다음과 같은 個所가 아니였음을 甚히 多幸으로 생각하는 者이다.

- 「文化의 敵은……이 나라의 나쇼나리스트다!..」

(양드레.지-드)

×

그러면 大體 作家大會는 어떤 文化를 擁護하려는것인가? 이 點은 明白하면서도 模糊하다. 大會는 누구와 싸흔까는 明白히 하엿으나, 누구를 支持할까는 明示하지 못하엿다. 「反파쇼」라는 것만은 確實하나, 그러타고 어떠한 文化를 支持한것인가에 對해서는 大會는 아모러한 決意도 보여 주지 못하엿다. 이 點에 우리는 이 大會의 歷史的인 限界를 볼 수 있다.

어쨌든지 大會는 結局이러케해서 「反파쇼的 抗爭」이라는 勇敢은 하나마 아직도 透明은 缺한 決議를 採用하엿을뿐이고, 自身の 政治的 論點을 決할

보담 더 明確한 決意의 表示는 保留한채, 겨우 反과쇼의 「反」字하나의 힘을 빌어 「各其 哲學的 文學的 政治的 見解를 달리만 作家에 依하여 結成된 이 困難한 會合의 意思의 統一을 간신히 期할수있엇을 따름이였다. 「反과쇼적」이라는 點에서는 完全히 一致되면서도 「멤버-」各自의 具體的인 見解사이에는 相當한 距離, 때로는 對立조차 없지 안헛기 때문이였다. 「가령 「방다」와 「게노-」 「니장」과의對立).

그러나 비록 그들이 이처럼 文化擁護實踐에 잇어서 明確한 方向을 缺하고 잇다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그들의 「善意志」만은 높게 評價해야만 할 것이 아니까? 見解와 見解사이에 多少의 「뉴안스」는 잇을 망정 그래도 正義의 感, 이것만은 共通된 感情이 아니였든가? 事實이 正義의 感이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이 같은 歷史的인 會合을 가지게 한 唯一의 主觀的 動力이 아닌가? 이러케 생각해 오면 우리는 그들이 堅持한 이 正義感만은 그리고 正義感으로부터 나온 文化實踐에 잇어서의 그들의 「善意志」만은 率直히 承認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. -적어도 그것이 「과시스트」의 「바-바리즘」과 抗爭하려는 限 그러나 正義感은 아직 正義는 아니다. 感情으로서의 」正義는 아직 正義는 아니다.

이런 것들 은 「칸트」의 形式主義的 道德說에서나 通用될 正義 善밖에는 못된다. 正義感이 正義되며 善意志가 善됨에는 반듯이 客觀的인 保證, 特히 歷史의 保證이 絶對로 必要한 것이다. 따라서 아직도 個人主義自由主義 「휴매니즘」等諸小市民적 「이데오로기」를 벗어나지 못한 이름 大部分의 作家의 所謂 그 正義感이라는것을 無條件으로 信服함도 또한 삼갈만한 일일 것이다. 더욱이 그들의 所謂 正義가 「루넛상스」以來로 人類가 싸허온 光輝잇는 文化를 「과시스트」의 「바-바리즘」의 □威로부터 防禦한다는 美名下에서 實相은 그 벌서 그文化로서의 任務를 終了한 쓰러져가는 文化를 擁護하려는 그러한 意味의 正義라면 우리는 이러한 正義는 오히려 警戒함이 조타. 웨냐하면 文化라는것은 그 自身에 잇어 벌서 언제나 하나의 「止揚」이며 따라서 文化가 本來이러한것인 以上 文化의 참된 擁護는 다만 辨證法的인 否定을 通해서의 傳承만이 잇을 따름이라는 事實을 우리는 알고 잇기 때문이다. 우리는 作家大會의 「善意志」를 높이 사주어야 할 것은 勿論이나 그러나 그와 同時에 이 運動의 今後의 動向에 對한 周到한 監視도 또한 잇어서는 안 될 것이다.

海外에서 이러난 한 개의 文化現象을 正當히 批判하며 攝取한다는것은 자못 어려운 일인듯 싶다. 이것은 思想의 輸入에 잇어 特히 그러하다. 過한잘 못이나 없엇다면 甚幸이겠다. (終)(五· 二〇)

【訂正】本文 第三回 第二段 第十六行「卽오로지 市民의 救濟를」은 「……小市民의 救濟를」의 誤植이기 訂正함